

# 점심 주정차 단속유예 행정시 각자 행보

도, 경기활성화 위해 지침 변경 단속유예 1시간 연장  
제주시, 지난 1일부터 '오전 11시~오후 2시'로 변경  
서귀포시는 기존 2시간 유지... 업계 불만 제기할 듯

제주시가 3월 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늘렸다. 반면 서귀포시는 종전처럼 2시간을 유지하며, 행정시별로 서로 다른 적용기준이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장기간 침체 상황이 이어지는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시간이던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시간까지 탄력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점심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월 1일부터 1시간 연장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으로 늘린 것이다.

시는 2026년 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제주공항·버스터미널·성판악·버스중앙차로 주변·

신제주 이마트·제주시청 일원 등 특별관리지역은 적용이 제외된다. 또 주민신고제 대상(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포함),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 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제외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상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과 원활한 차량 소통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늘리지 않고 그대로 2시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의 관련 지침은 변경됐지만 단속 유예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시장이 정

하게 돼 있어서다.

하지만 도의 점심 단속 유예시간 1시간 연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인데다, 행정시마다 단속 시간이 다를 경우 식당을 이용하는 도민·관광객 등 이용자의 혼선과 식당 영업주의 불만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활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 범위에서 탄력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서 받았다"며 "검토 결과 행정시마다 처한 교통 여건이 다르고, 현재처럼 점심시간의 경우 2시간 단속 유예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존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현장 심사 도입 도, 총 17개 사업 2025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 확정 슬로푸드 '맛의 방주' 프로젝트 등재 품목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향토음식명인·장인 지정 시 현장 심사를 도입한다. 슬로푸드 '맛의 방주' 프로젝트에 제주 전통음식 추가 등재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총 17개 사업에 6억4400만 원을 투자하는 2025년 향토음식 육성 시행 계획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다. 위원회는 제3차 제주 향토음식 기본계획(2023~2027)을 근거로 올해 투자 계획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향토음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명인·장인 지정 제도를 개설했다. 기존 서류 심사만 진행하던 방식에서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단계별 심사를 도입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 향토음식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슬로푸드 '맛의 방주' 프로젝트에 제주 전통음식과 식재료 추가 등재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돌비(두부), 오합주, 삼다찰(조), 수웨(순대), 제주오메기술

등 5개 품목을 올렸다. 올 2월 기준 제주 등재 품목은 총 31개(한국 전체 123개)에 이른다.

또한 제주 향토음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국제요리대회인 제주 향토음식 품평회 및 세계조리사회연맹(WACS) 경진대회를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한다. 작년에는 경진대회에 국내 6개 지역, 국외 6개국에서 155팀 227명이 참가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향토음식 산업화도 추진한다. 제주 농축산물과 향토음식을 활용한 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을 통해 향토음식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향토음식적 디지털 메뉴판 확대 보급,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등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는 향토음식 위생등급제 시범 적용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합동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향토음식 발굴·보존·계승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 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일상돌봄' 제공기관 모집 사회서비스원, 6곳 선정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생활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거점 제공기관을 모집한다.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지만 공급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포함한 도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거점기관이 모집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인센티브 등은 거점 제공기관 선정 이후부터 지원된다. 거점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인 '일상돌봄'이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6개 제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취약지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수수료, 임차료 등이 지원된다. 기관당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심사는 13일, 결과는 14일 발표된다.

부미현기자



봄 재촉하는 비. 봄비가 내린 3일 제주시 신산공원을 찾은 시민이 활짝 핀 꽃을 구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활동서비스 받는다 제주시, 기존 18~65세 미만→18세 이상으로 확대

제주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기준을 완화하면서 65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주간활동서비스를 3월부터는 만 18세 이상이면 연령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돌봄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직업체력,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본형 기준 월 132시간(확장형 176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서비스는 직업체력, 생활체육, 취미여가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본형 기준 월 132시간(확장형 176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도, 필리핀 관광시장 공략... 전세기 증편

작년 11편→ 올해 19편으로  
제주를 찾는 필리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남아 관광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필리핀 마닐라발 첫 전세기가 제주에 도착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다. 올 들어 첫 취항한 외국인 관광객 전세기다.

이번 전세기 운항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마닐라 현지에서 진행한 제주 관광 세일즈에 의한 것이다. 올해 제주-필리핀 노선은 총 19편이 운항될 예정으로

작년(11편) 대비 73% 증가했다. 제주도는 "필리핀에서 제주 관광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날 입도한 방문객들은 필리핀 의료 장비 제조·유통사 자파이어 디스트리뷰터 인센티브단 11명, 현지 주요 여행 업체 대표 14명을 포함 18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3일까지 한라산 1100고지, 성산일출봉, 감귤 따기 체험장, 성읍민속마을 등에서 제주의 매력을 만났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필리핀 관광객은 1만8854명으로 전년(9257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진주강씨제주염통악파 장학생선발공고

2025년도 진주강씨제주염통악파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선발대상**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종친회 자녀 단, 염통악파종친회 장학금을 수혜 받은 가족과 신입생 제외 ※장학금을 수혜 받았어도 3자녀 이상은 2회까지 신청 가능
- **선발인원** : 대학생 1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5. 3. 10.(월) ~ 2025. 3. 12.(수)  
○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 **접수처** : 종친회 사무실(제주시 서광로 162, 3층)
- **제출서류 (각 1부)**  
① 신청서(본회 소정양식, 사진첨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전년도 2학기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과목별납세증명서 및 비과세증명서  
⑤ 당해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 영수증 사본  
⑥ 장학금수혜확인서
- **선발방법** : 본회 장학생 심사규정에 의함.
- **기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강 동 현 ☎010-9487-9876

**진주강씨제주염통악파종친회**  
회장 강 주 민

##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임시총회 개최 공고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임원제위와 동문들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일시** 2025년 3월 10일(월) 19시
- **장소** 총동창회관 (청사로1길18. 3층)
- **안 건**:  
▶ 1부: 제2차 이사회(19시)  
○ 제1호 의안 : 회칙개정(안)의 건  
○ 제2호 의안 : 교명변경(안)의 건  
▶ 2부: 임시총회(19시30분)  
○ 보고사항 : 회칙개정(안), 교명변경(안) 보고의 건
- **연락처** : 712-1205

**한림공업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 조근배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수시모집

###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철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전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4 HBSA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살충제 훈제 전화 주선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이클을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